

# 맨유 챔스리그 16강 안착

스페인 비야레알팀과 무승부

함께 2승3무…조 1·2위 확정

박지성 후반 42분 교체 투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비야레알(스페인)과 득점없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란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박지성은 막판 교체 투입됐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또 아스널(잉글랜드)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바이에른 뮌헨(독일), 올랭피크 리옹(프랑스)도 16강에 합류했다.

맨유는 26일(한국시간) 새벽 스페인 비야레알 엘 마드리갈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비야레알과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5차전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2승3무를 거둔 맨유(승점9·골득실+6)는 비야레알(승점9·골득실+4)과 동률을 이뤄 조 1, 2위를 확정, 셀틱(스코틀랜드·승점2)에 2-1 역전승을 거둔 을보르(덴마크·승점5)와 승점 차를 4로 벌리면서 남은 1경기에 관계없이 16강 동반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가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비야레알 엘 마드리갈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마르코스 세나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 조중연 '암승'이냐…허승표 '뒤집기'냐

‘포스트 MJ’를 꿈꾸는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암승이나 변화를 표방하는 허승표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의 막판 뒤집기’냐

지난 16년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왔던 정동준 회장의 뒤를 이을 제51대 회장 선거 전 판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차기 축구협회장 후보가 조중연 부회장과 허승표 이사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투표권은 행사할 7개 연맹과 16개 시·도 회장 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허승표 이사장 측은 7개 연맹 중 2~3표와 16개 시·도 중 12~13표를 확보해야 조중연 부회장을 꺾는다는 계산이지만 승부수를 띄웠던 대학연맹을 놓침에 따라 당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허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관심

승표 이사장 측은 고등연맹도 빨간불이 켜졌다. 출마를 선언한 박병주 축구연구소 고문이 자격 시비에 휘말린 것. 고등연맹은 허 이사장을 지지하는 박병주 고문을 불러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후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지난달 지도자협의회 워크숍 때 참석자들이 금품을 돌린 것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전달했다.

나머지 연맹 상황도 허승표 이사장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업연맹은 지난 14일 단독 출마했던 손재병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새 회장으로

로 추대했고 여자연맹은 27일 총회에서 단독 후보인 오규상 미포조선 단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한다.

송재병 실업연맹 회장과 오규상 여자연맹 회장 후보는 모두 정동준 회장의 영향권에 있어 사실상 조중연 부회장 표로 분류된다.

남은 16개 시·도 협회 회장 표의 행방이다. 대전시협회가 지난 6월 일신상 이유로 물러난 김남진 회장 후임으로 임용혁 회장을 선출해 첫 테이프를 끊었고 경남협회도 지난달 21일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현우 회장을 재추대했다.

야당 후보인 허승표 이사장이 시·도 협회 회장들의 표를 독식하며 극적인 반전

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포스트 MJ’를 꿈꾸는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암승이나 변화를 표방하는 허승표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의 막판 뒤집기’냐

지난 16년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왔던 정동준 회장의 뒤를 이을 제51대 회장 선거 전 판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차

기 축구협회장 후보가 조중연 부회장과 허승표 이사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투표권은 행사할 7개 연맹과 16개 시·도 회장 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허승표 이사장 측은 7개 연맹 중 2~3

표와 16개 시·도 중 12~13표를 확보해야

조중연 부회장을 꺾는다는 계산이지만 승부수를 띄웠던 대학연맹을 놓침에 따라 당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허

승표 이사장 측은 고등연맹도 빨간불이 켜졌다. 출마를 선언한 박병주 축구연구소 고문이 자격 시비에 휘말린 것. 고등연

맹은 허 이사장을 지지하는 박병주 고문

을 불러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게 후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지난달

지도자협의회 워크숍 때 참석자들이 금품을 돌린 것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는 입장은 전달했다.

나머지 연맹 상황도 허승표 이사장에

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업연맹은 지난 14일 단독 출마했던

손재병 현대미포조선 사장을 새 회장으

로 추대했고 여자연맹은 27일 총회에서

단독 후보인 오규상 미포조선 단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한다.

송재병 실업연맹 회장과 오규상 여자

연맹 회장 후보는 모두 정동준 회장의 영

향권에 있어 사실상 조중연 부회장 표로

분류된다.

남은 16개 시·도 협회 회장 표의 행

방이다. 대전시협회가 지난 6월 일신상

이유로 물러난 김남진 회장 후임으로 임

용혁 회장을 선출해 첫 테이프를 끊었고

경남협회도 지난달 21일 총회를 열어 만

장일치로 전현우 회장을 재추대했다.

야당 후보인 허승표 이사장이 시·도 협

회 회장들의 표를 독식하며 극적인 반전

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광주 상무, 금호고와 U-18팀 운영

어제 시체육회서 협약식

내년 U-15팀도 창단키로

광주상무프로축구단(단장 나무석)이 26일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실에서 금호고등학교(교장 박관표)와 U-18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을 체결한 광주상무는 금호고 축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금호고는 학사 관리를 맡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고 축구 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지역 축구인재 유통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상무는 금호고 협약과 별도로 2009년부터 구단 자체적으로 U-15팀을 창단하기로 해, 지난해부터 운영했던 U-12팀을 비롯한 U-15, U-18팀까지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광주구단 나무석 단장은 “어린 선수들



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별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완성해 가지고 있다”며 “축구실력뿐만 아니라 지성과 인성을 갖춘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5년 창단된 금호고 축구팀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고교 명문 팀으로 신연호, 김관근, 황영우, 김태영, 윤정환, 고종수, 김승현, 고창현 등의 선수를 배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격투기 외도’ 이태현 모래판 복귀

구미시청 씨름단 입단키로



씨름 천하장사 출신으로 그동안 격투기에 서 활동한 이태현(32·사진)이 모래판으로 돌아간다.

김종화(48) 구미시청 씨름단 감독은 26일 “이태현과 내달 초쯤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서 “그와 10여 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우리 씨름단에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태현은 2006년 9월 프라이드 대회를 통해 격투기에 데뷔한 이후 1승2패를 거둔 이후 2년에 만에 다시 삶의 끝에 뒤집어 놓았고 경남협회도 지난달 21일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현우 회장을 재추대했다.

630경기에 나서 472승158패(승률 74.9%)를 기록하며 신봉민(409승)을 따돌리고 역대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일월드컵 4강 주역 최진철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코치로

2002 한일월드컵축구 4강 신화의 주역 최진철(37)이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참가하는 신생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 코치로 선임돼 지도자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

강원FC는 26일 “최진철을 수비전담 코치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중앙중·오후고·승실태대를 졸업한 최진철은 1996년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 입단한 뒤 지난해 은퇴하기까지 12시즌 동안 전북에서만 뛰며 312경기에서 28골11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실업리그 선수도 승부조작…16명 입건

아마추어 축구 K3리그 선수들이 최근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거된 데 이어 또다시 실업리그 선수들이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축구선수들의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실업리그 E구단 선수 4명과 구단 관계자, K3리그 P구단 선수 11명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브로커 2명과 K3리그 소속 축구선수 1명 등 3명을 승부조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리그 선수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실업리그 선수와 구단 관계자 등은 중국 도박업체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경기당 1억원 씩 약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지난 8월16일, 10월22일, 11월1일 차례로 각각 16명의 혐의로 고의로 배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약속한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P구단 소속 선수 11명은 동료선수인 이모(28·구속) 씨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의와 함께 각각 15만 원 씩 받고 1~2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조작을 요청한 중국의 도박업체들은 중국 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경기를 지켜보며 거액의 스포츠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목)

▲탁구 슈퍼리그 <KT&G : 삼성생명> (13 : 50), <서울시청 : 한국마사회> (16 : 20·KBSN SPORTS)

▲대학장사씨름 삼척한미당 용장, 역사급 (14 : 00·MBCESPN)

▲전국휠체어 농구대회 (14 : 10·KBS1)

▲프로농구 <신세계 : 국민은행> (16 : 50), <KCC : SK> (18 : 50·SBS스포츠), <오리온스 : KT&G> (19 : 00·MBCESPN·X-sports)

▲V리그 <삼성화재 : 신협상무> (18 : 40·KBSN SPORTS)

## 웨빙공인증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사이트1차 단지내상가  
☎ 062)575-8389 훈 010-4667-7749

### 임대[신축]→맞춤형 임대료

-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 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 1층: 165㎡ (구50평), 178㎡ (구54평)
- 권장: 식당·판매·제이컵·스포츠用品·전시장, 레스토랑

2층: 178㎡ (구54평), 295㎡ (구88평)

- 권장: 회의실/보습·댄스·무용·강좌, 사무실, 교회

### 매매/임대 고수익과 안정성 보장

#### • 양산GS 그린/자이/이 단지내상가

면적	매매가	임대수익률	비 고
<tbl